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해양을 따라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다

● Contents



□ 카타르, 2016년 신항 완공 계획	2
□ 터키, 글로벌 항만산업 시선집중	3
□ 앤티워프항, 인도 에사르항과의 전략적 협력으로 3,110만 달러 투자	4
□ 상하이항, 2015년까지 3,300만 TEU 증대 목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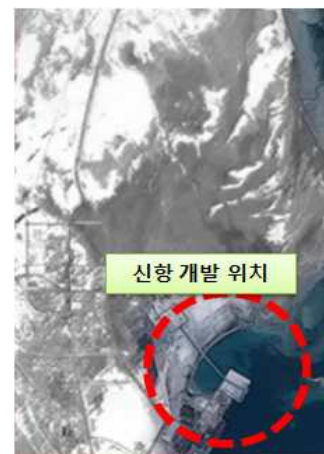
## □ 카타르, 2016년 신항 완공 계획

- 카타르는 2016년 1분기까지 도하항(Doha Port) 남단에 신항 개발을 위해 74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 액화 천연 가스의 세계 최대 수출국인 카타르는 금번 프로젝트에 신규 도로와 공항 및 350억 달러 규모의 철도와 전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또한 55억 달러 규모의 심수항 개발 및 향후 10년간 도하(Doha)지역 내 회랑, 터널 시스템 개발도 포함되어 있음
- 카타르 수도인 도하의 남쪽에 위치할 예정인 신항은 현재 도하항의 혼잡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 26.5km<sup>2</sup> 면적에 걸쳐 개발되는 신항은 연간 컨테이너 600만 TEU를 상응하는 처리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깊은 심수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신항 건설을 통해 도하지역은 운송 및 무역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번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임
- 금번 인프라부문 프로젝트는 카타르 기업에게 독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외국 파트너의 경우 그 지분율은 51% 미만이 될 예정
  - 그 외에 장비 및 해양 프로젝트는 카타르 지역 제조업체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외국기업도 개발에 참여토록 할 계획임
  - 관계자에 따르면, 2016년 신항 프로젝트 완공 전까지 총 17개의 계약을 추진할 예정임

< 신항 조감도 >



< 신항 위치 >



자료 : www.seanews.com.tr/ www.arabianbusiness.com, 2012.5.31

이성우 연구위원 (☎ 02-2105-2830, waterfront@kmi.re.kr)

## □ 터키, 글로벌 항만산업 시선집중

- 최근 터키의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글로벌 항만산업계가 터키에 시선 집중
  - 2011년 터키의 GDP는 7,433억 달러로 2007년 이후 연평균 3.4% 증가하고 있으며,
  - 수출은 1,293억 달러, 수입은 1,978억 달러로 동기간 각각 연평균 2.9%와 5.1% 증가하는 추세<sup>1)</sup>
- 경제발전에 힘입은 터키의 항만산업은 최근 시설능력 600만 TEU 이상의 컨테이너터미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지중해와 흑해 인근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규 컨테이너터미널 개발의 50%에 육박하는 것임
  - 터키의 Yildirim그룹은 Malta Freeport의 지분 50%를 가진 CMA CGM의 지분 20%를 투자
  - 최근 민영화된 Iskenderun 항만은 시설능력 130만 TEU의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계획 발표
  - PSA는 Mersin항에 처리능력 250만 TEU의 컨테이너터미널의 마지막 단계를 진행 중
  - APM Terminal은 터키의 Petkim Petrokimya 그룹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에게해 인근 Petkim항에 처리능력 300만 TEU의 컨테이너터미널 개발 1단계 사업을 진행 중
- 이러한 터키의 경제 및 항만산업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벨기에의 엔트워프항만청도 엔트워프항이 유럽과 터키 간 발생하는 컨테이너화물을 위한 관문으로 역할하기 위한 터키 항만산업계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할 것을 표명
  - 이는 2011년 기준 엔트워프항과 터키 간에 발생한 화물은 1천만 톤 가량(유럽-터키 간 발생한 화물의 63% 수준)으로 엔트워프항 물동량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
  - 이에 엔트워프항만청은 지난 3월에는 이스탄불(Istanbul), 부르사(Bursa), 이즈미르(Izmir) 지역 무역협회 회원 15명을 초청한 바 있으며, 5월 말 엔트워프항만청이 주관한 해운산업모임(Maritime Community)에 터키 정계의 고위급 관계자도 초대하여 친목과 상호협력 발전을 도모

자료 : www.lloydlist.com, 2012.6.1

김찬호 부연구위원 (☎ 02-2105-2908, [chkim@kmi.re.kr](mailto:chkim@kmi.re.kr))

1) KMI 국제물류위클리 137호 참조

## □ 앤트워프항, 인도 에사르항과의 전략적 협력으로 3,110만 달러 투자

- 앤트워프항<sup>1)</sup> 국제투자기관인 PAI(Port of Antwerp International)는 3,110만 달러를 투자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화물 시장인 인도 에사르항(Essar Port)<sup>2)</sup>의 지분을 4% 획득함
  - 앤트워프항만당국과 에사르항은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항만 계획, 물류흐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분야에서의 협력, 더 나아가서는 투자 및 사업 영역에서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십 구축
  - PAI는 앤트워프항의 자회사로 자체 경험을 자본화하여 투자와 컨설팅 사업을 통한 글로벌 항만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2010년에 설립되었음
  - PAI는 현재 인도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 브라질, 남동 아시아에도 사업기회를 고려 중이며, 이미 오만정부와 두쿰(Duqm)에 새로운 항만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
- 에사르항은 하지라(Hazira)와 바디나르(Vadinar) 두 개의 터미널에서 연간 8,800만 톤(MMTPA<sup>3)</sup>)을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 내에 기존 항만의 확장 및 신규항만개발을 통해 연간처리물동량이 약 15,800만 톤으로 확장될 것임
  - 하지라 터미널은 연간 3,000만 톤(MMTPA)의 벌크화물을 처리하고, 바디나르 터미널은 연간 5,800만 톤(MMTPA)의 액체화물을 처리하는 전전후 심수항(All-Weather Deep-Draft Port)임
  - 에사르항은 파라딕(Paradip)에 1,600만 톤(MMTPA)의 철광석 선석과 1,400만 톤(MMTPA)의 석탄 선석을 갖춘 두 개의 터미널을 개발 중이고, 살라야(Salaya)에 2,000만 톤(MMTPA)의 벌크터미널을 준비 중임
  - 그리고 3천만 톤(MMTPA) 규모의 하지라 터미널을 5천만톤(MMTPA) 규모로 확장할 계획임
- 앤트워프항의 사장인 마크반필(Marc Van Peel)은 에사르항과의 상호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은 인도뿐만 아니라 유럽지역에서의 추가 항만개발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힘
  - 마크반필은 에사르항은 인도에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신뢰성이 우수한 동반자라고 언급하며, 에사르항은 앤트워프항이 인도에서 항만개발 활동을 수행할 때 도움을 줄 것이며, 앤트워프항은 항만개발 및 운영전략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에사르항에 전수할 것이라고 말함
  - 두 회사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관계로 PAI는 에사르항의 이사회를 임명할 권리를 가지게 되어, 앤트워프항의 CFO인 잔아담(Jan Adam)이 에사르항의 비상임 이사로 임명됨

1) 유럽 제2의 항만인 동시에 유럽 여러 국가의 관문 역할을 하는 앤트워프항은 2011년 기준 1억 8천 7백만 톤의 화물을 처리함

2) 에사르항은 철강, 에너지, 전력, 건설, 소매, 해운, 항만, 인프라 및 서비스 영역에서 선도기업이며 다국적 기업인 에사르그룹의 일원임

3) MMTPA(Milion Metric Tonne Per Annum, 연간 백만톤)



- 에사르항의 관리이사인 라지브아가왈(Rajiv Agarwal)은 이번 전략적 협력이 에사르항의 물동량 증가뿐만 아니라 항만 설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 라지브아가왈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항만인 앤트워프항과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하여 두 항만 모두 물동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힘
- 특히 에사르항이 세계 수준의 품질, 생산성,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항만 설비를 개발하는 데 앤트워프항의 전문 노하우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에사르항(하지라 및 바디나르 위치)>



< 에사르항 터미널 전경 >



자료 : www.lloydlist.com, 2012.5.30/ www.maritimeprofessional.com, 2012.5.30

이언경 전문연구원 (☎ 02-2105-2919, eklee@kmi.re.kr)

## □ 상하이항, 2015년까지 3,300만 TEU 증대 목표

- 상하이 주는 상하이항(Port of Shanghai)은 2011년 대비 2015년까지 컨테이너 물동량을 4.1% 증대할 목표를 수립
  - 상하이항은 2011년에 3,170만 TEU를 처리하였으며, 2015년에는 연간 3,300만 TEU를 처리하도록 할 계획임
- 아울러 상하이 주 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상하이에 주요 금융 및 해운센터(Financing and Shipping Centre)를 구축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2015년까지 연간 158억 달러 규모의 중고선 매매 시장 개설을 추진할 예정임
- 또한 2015년까지 양쯔강 삼각주의 도로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하이항과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내륙 수로의 용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추가로 개발할 계획
  - 현재 상하이항 화물의 약 42%는 수로를 경유해 운송 중인데 이는 도로와 철도와 비교해 수로로 더 많은 운송 물동량을 발생시킴
  - 상하이시는 2015년까지 수로를 통한 물동량이 45%까지 증대할 것을 목표로 함
- 한편 상하이항은 대외 무역량의 99%, 무역 상품의 60%를 운송하며, 상하이항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은 중국 전체 대외 무역량의 1/4을 차지
  - 매달 상하이항에서 약 2,000대 선박이 전세계 주요 항으로 출항하며, 2006년~2011년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평균 7.9%로 증가함

< 상하이항 위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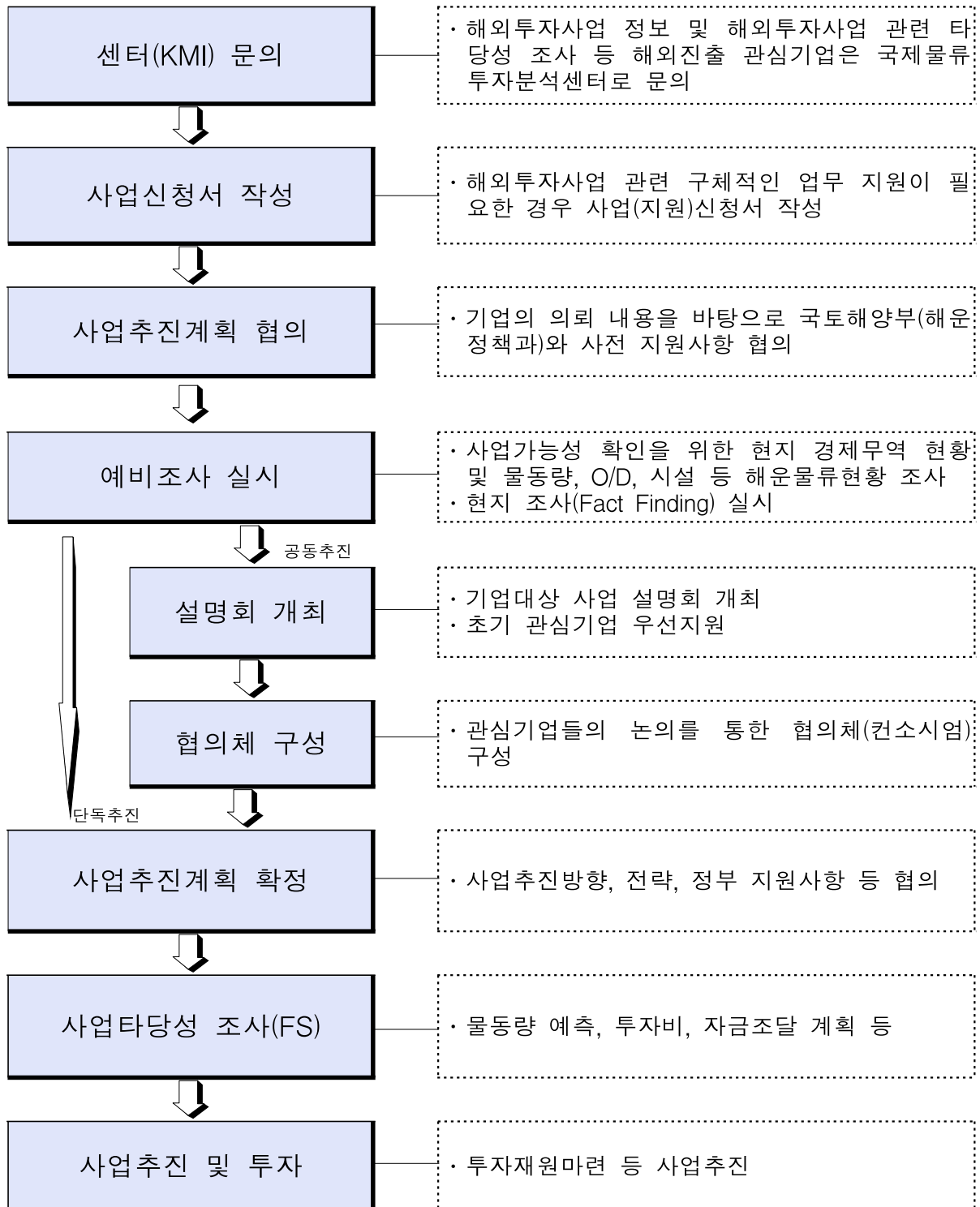
< 상하이항 컨테이너 터미널 전경 >



자료 : www.en.portnews.ru, 2012.6.6

황현주 연구원 (☎ 02-2105-2897, julya7@kmi.re.kr)

##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